

2026년 농산업 수출 확대 전략

2026. 2.



농림축산식품부
농산업수출진흥과

순서

I. 2025년 수출 성과	1
II. 2026년 수출 전망	2
III. 목표 및 추진 전략	3
IV. 세부 추진 계획	4
1. 국내·외 수출 거점·기반 조성	4
Platform Set-up	
2. 규제 대응 및 무역장벽 해소	6
Readiness & Rules	
3. 기술혁신·고도화	7
Innovation	
4. 시장 개척 지원	8
Market & Move	
5. 대외 협력체계 강화	9
External Governance	
V. 품목별 마케팅 전략	10
VI. 추진일정	11

I. 2025년 수출 성과

□ (총괄) '25년 농산업* 수출은 32.4억 달러로 전년 대비 9.0% 증가

* 농기계, 농약, 비료, 종자, 동물용의약품 등 농업 전후방산업

○ 농산업 수출 실적을 공식 집계·발표한 2022년 이후 최대 실적 및 증가율을 달성

* 연도별 수출액(증감률) : ('22) 30.3억달러 → ('23) 29.7(△2.0%) → ('24) 29.8(0.3↑) → ('25) 32.4(9.0↑)

□ (품목별) 농기계, 농약, 비료, 종자, 동물용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서 고르게 수출 증가

* 주요 품목별 수출액(증가율) : 농기계 1,367.3백만달러(12.2%↑), 농약 946.3(15.4↑), 비료 447.6(8.3↑), 종자 60.1(5.9↑), 동물용의약품 330.0(9.8↑)

○ (농기계) 미국 관세 부과 등 어려운 교역 여건에도 불구하고, 미국 시장 제품 다양화, 아시아·유럽 등 시장 개척 등을 통해 호실적 기록

* (미국) 972.9백만달러(17.0%↑), (네덜란드) 48.4(30.9↑), (일본) 24.2(13.5↑)

○ (농약) 아시아 중심 완제품 수요 확대, 다국적 기업들의 국내 기업 위탁생산 확대 등으로 수출 실적이 크게 향상

* (중국) 141.4백만달러(39.6%↑), (베트남) 139.6(24.3↑), (인니) 109.6(145.9↑)

○ (비료) 동남아 권역 한국산 제품 인지도 향상, 러시아·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출통제 정책 등으로 수출 실적 개선

* (태국) 116.7백만달러(9.0%↑), (베트남) 92.4(11.5↑), (일본) 46.3(9.0↑)

○ (동물용의약품) 유럽 내 중국산 라이신(동물용영양제) 대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실적 신장

* (네덜란드) 29.3백만달러(107.9%↑), (스페인) 23.9(39.3↑), (이탈리아) 13.9(114.1↑)

○ (종자)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산 고추 종자와 옥수수 종자 수출 확대가 전체 종자 수출 견인

* (베트남) 4.2백만달러(150.1%↑), (이집트) 2.3(5.8↑), (태국) 1.4(29.7↑)

II. 2026년 수출 전망

□ (총괄)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·호감도 향상에 따른 K-푸드* 수요 확대로 수출 성장세 유지 전망

○ 환율·원자재 가격 변동, 보호무역 기조 등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심화 및 중국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는 장애요인

□ 품목별 시장 동향 및 전망

○ (농기계) 주력시장인 미국은 트랙터 품목관세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 예상, 유럽·동남아 등은 그간 신시장 개척 성과 가속화 예상

* '25년 농기계의 對미 수출 비중은 71.2%(972.9백만달러), 농기계 對미 수출액 중 트랙터가 72.9%(709.4백만달러) 차지

○ (비료·농약) 동남아(한국 제품 인지도 향상), 일본·인도(수요 확대) 수출 증가 전망되나, 중국산 대비 낮은 가격경쟁력 극복이 관건

* (일본) 쌀값 상승 등으로 투입재 수요 확대, (인도) 농업 생산 확대 및 러시아·중국 수출통제에 따른 공급 공백

○ (동물용의약품) 라이신은 중국 저가 공세로 유럽 내 수출 둔화 예상

- 부스틴*(산유촉진제)은 LG공장(화재) 수출 재개, 의료기기는 반려동물 증가 및 가축전염병 확산 등에 따라 수출 여건 양호

* ('24) 44.7백만달러 수출 → ('25) 화재('25.2) 이후 21.7백만달러로 감소

○ (종자) 고추·무·파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

□ 보완 과제

○ (시장 다변화) 지역별 수요 연계 제품 개발 및 전략적 마케팅 등으로 새로운 수출 시장·품목을 개척하는 것이 수출 확대의 핵심

○ (리스크·규제 대응) 리스크 이슈 발생 시 사후 대응, 기업 자체 규제 대응 등 리스크·규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미흡

- 민·관 협력체계, 정부 간 협의채널 등 상시 관리체계 구축 필요

○ (수출 거점 조성)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전시·홍보할 수 있고, 기업에 수출 편의적 환경을 제공하는 수출 지원 플랫폼 필요

Ⅲ. 목표 및 추진 전략

비전	수출로 개척하는 K-농산업 프라임(PRIME) 타임
목표	2026년 농산업 38억 달러 수출

< 5대(P-R-I-M-E) 추진 전략 >

1	국내·외 수출 거점·기반 조성 Platform Set-up	① 해외 시범온실 조성·운영 ② 국내 홍보·업무지원 거점 조성 -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, 농업 AX 비즈니스센터 ③ 농기계 수출 거점 구축 - 필리핀 한국농기계전용공단, 세네갈 농기계 수리센터
2	규제 대응 및 무역장벽 해소 Readiness & Rules	① 인·허가 통합 지원단 구성 ② 통상 대응 민·관 협의체 운영 ③ 농산업 비관세장벽(NTE) 애로 해소
3	기술혁신·고도화 Innovation	① 수출 목적 연구개발(R&D) 및 실증 강화 ② 부처협업형(중기부) 스마트 공장 조성 ③ 동물용의약품 고도화
4	시장 개척 지원 Market & Move	① 수출 전주기(준비→실행→홍보) 지원 확대 ② 스마트팜 대규모 수주 지원 강화 ③ 마케팅, 운영자금, 수출바우처 등 지원
5	대외 협력체계 강화 External Governance	① 스마트팜 정부 간 협력(G2G) 강화 ② 정부기관·투자기관 초청설명회 신설

Ⅳ. 세부 추진 계획

1 국내·외 수출 거점·기반 조성 (Platform Set-up)

◆ **바이어·프로젝트 발굴·매칭, 홍보, 계약 지원 등을 위한 품목별·지역별 맞춤형 수출지원 플랫폼 확충**

- (스마트팜) 해외 현지 시범온실 및 국내 수출지원센터 조성
 - (시범온실) 중동(사우디, '26.上 준공), 북미(캐나다, '26년 착공 → '27년 준공) 시범온실 추가 조성, 5개 주요 권역* 현지 수출거점 마련
 - * CIS(카자흐스탄, '21), 동남아(베트남, '22), 오세아니아(호주, '24), 중동(사우디, '26), 북미(캐나다, ~'27)
 - 현지에서 기자재·기술·인력 패키지 전시·시연 및 실증 역할을 통해 해외 바이어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주·수출 계약으로 연결
 - * (사례) 베트남 시범온실 활용 인니('24년 37만달러) 및 베트남('25년 4만달러) 수주 체결
 - (수출지원센터) 스마트팜 상시 전시·홍보·실증 및 바이어 유치를 지원하는 국내 수출지원센터 신규 조성(충남 서산, '26~'28, 총 450억원)
 - * (유사사례) 네덜란드 World Horti Center(온실 원예 관련 상설 전시·홍보 거점)
 - * (일정) 지방정부 선정('26.1, 완료) → 기본계획 수립('26.上) → 실시설계 및 착공('26.下)
 - 바이어가 여러 기업의 제품을 원스톱 비교·검증할 수 있는 상설 전시·홍보관 운영, 의사결정 시간 단축 및 계약 성사율 제고
 - 중동(사막), 동남아(열대), CIS(사계절), 유럽·북미(첨단제품) 등 권역별 특별 전시·홍보관 운영 및 박람회·수출상담회 등 개최

<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기능(안) >

- ▶ (필수 기능) ①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제품·모형 상시 전시, ② 해외 바이어 초청 스마트팜 수출 마케팅 행사(박람회, 시연회, 수출상담회 등) 개최
- ▶ (부가 기능) ① 기업 관계자 대상 수출 역량강화 교육, ② 스마트팜 업계 및 타 산업(건설, IT 등) 간 네트워크 지원, ③ 업무지원시설(회의실, 세미나실 등) 운영

□ (농기계) 미국(수출 비중 : 71%)에 편중된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동남아, 아프리카 등 유망·잠재 권역별 맞춤형 수출 거점 구축

○ (동남아)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기업과 협력, 동남아 수출 거점으로서 필리핀 한국농기계전용공단 조성('26~'34, 카바나투안시)

* (조성단계) 1단계 '26~'28년(2만평), 2단계 '29~'31년(2만평), 3단계 '32~'34년(2만평)

- 공단 조성 및 연계, 공단 내 농기계 조립단지(입주기업 공동 활용)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ODA 추진 검토('26년 외교부 등 심사, '27년 추진)

* (농기계조합·기업) 한국 기업 투자를 통한 공단 조성 / (필리핀) 토지임대(75년), 인프라 구축, 관세 면제 / (농식품부) 조립단지 및 교육 ODA, 필리핀 정부 협상 지원

○ (아프리카) 세네갈에 농기계 수리센터 구축 중으로, 수리·임대 사업을 통해 중장기적 아프리카 진출 발판 마련('24~'27, ODA 사업)

□ (농업 AX 비즈니스센터) 무인·자동화 시설·장비, 로봇 등 AX 모델의 국내·외 확산과 유망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종합 비즈니스센터 구축

* (대상 지역) 전남 무안, (사업 기간) '26~'28, (총 사업비) 450억원

* (일정) 기본계획 수립('26.上) → 실시설계('26.下) → 착공('27.上)

○ (국내·외 확산) 국내·외 수요처의 국내 AX 제품 접근 환경 제공

- (패키지) 기자재·솔루션을 종합하여 작목별 'K-농업 AX 패키지*'를 구성·전시하고, 기업 컨소시엄 매칭 및 브랜드화 지원

* (예 : 발작물) 자동관수 + AI 생육·병해충 진단 시스템 + 방제 드론 + 무인 수확기

- (홍보·네트워크) 국내·외 수요처 초청상담회, 국제 박람회·포럼 등 개최, 해외 AI 기관·대학 등과 협력해 공동 프로젝트 발굴·기획

- (교육) AI 시스템, 데이터 분석, 솔루션 등 체험·교육 프로그램 운영

○ (창업 지원) 예비창업자, 벤처기업 등 대상 창업 및 초기 성장 지원

- (컨설팅) 해외 인허가·인증·특허·법률 등 맞춤형 수출 컨설팅

- (투자유치) 벤처·정책금융,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운용사 입점·매칭

- (유지관리) AI 적용 농장의 생육 상태별 실시간·원격 컨설팅

* (AI 적용 농장) 작물 생육 데이터 수집·제공 → (비즈니스센터) 재배전문 기업 및 농진청 등과 데이터 공유 및 협업하여 맞춤형 컨설팅 제공

2

규제 대응 및 무역장벽 해소 (Readiness & Rules)

◆ 기존 개별 기업 대응 지원 → 개선 민간 협력체계 및 정부 간 협의채널 구축

□ (인·허가 지원) 농식품부, 농진청, 품목별 단체·기업 등과 '농산업 글로벌 인·허가 통합 지원단' 신설, 정보 공유 및 대응 전략 모색

○ 통합 지원단 운영(반기 1회)을 통해 인·허가 수요 파악, 해당 품목·국가 인·허가 요건·절차, 해외 대행업체 등 정보 제공 및 취득 비용 지원

○ 우선 지원 제품을 선정, 농진청(해외 인·허가 기관 네트워크 보유)과 협업해 해외 인·허가 기관과 협의채널을 구축, 정부 직접 협의 추진

* '26년 한국·브라질 간 농약 인허가 간소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(MOU) 추진 중

- 농진청 R&D·실증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임시 인·허가, 상호인정 등 협의, 인·허가 취득 기간 단축(임시 인·허가 시 2~3년 → 6개월 단축)

□ (통상 대응) 기존 이슈(관세 변화 등) 발생 시 사후 대응 → 개선 민·관 정례적 협의체 구축, 통상정책 변화 시나리오별 영향 검토 및 대응전략 모색

○ KOTRA(이슈 발생 가능성 검토) - 품목별 협회 및 기업(이슈 시나리오별 업계 대응전략) - 농식품부(정부 지원방안) 협의체 운영 정례화(반기 1회)

□ (비관세장벽 대응) 농산업 분야 무역장벽(NTE) 애로 해소 지원 강화

○ 국가별 규제·법령, 무역정보(WTO SPS/TBT, 농약허용물질목록 등) 등 변경 내용 및 영향 신속 공유(농진원, 이슈리포트 주 1회)

* (기존) 변경 내용 제공 → (추가) 단순 변경 내용 이외 사례 중심 영향 분석

○ 농산업 분야 HSK코드 개정을 통해 통관 애로 해소(관세청·재정부 협조)

* 스마트팜 등은 전용 HSK코드가 부재, 국가마다 다른 코드를 적용해 통관 지연 사례 등 발생

* (일정) HSK 개정안 마련('26) → 관계부처 협의('27) → 개정 HSK 시행('28)

○ 스마트팜·농기계 해외채권 손실 보전을 위한 단기수출보험 우대 지원

* 202개 HSK코드에 대해 중소·중견기업 보험료 20% 할인, 보험한도 최대 2배 확대

○ 스마트팜 중점무역관 지정 권역을 확대*하고, 법무·회계 대응 등 현지 애로 지원 내실화**로 기업 활용도 제고(KOTRA 협조)

* CIS, 중동, 동남아(3개 권역) → 중동, 동남아, 북미, 유럽(4개 권역)

** (기존) 기업 자체 지원 요구 → (개선) 분기별 기업 애로 접수 및 지원 요구, 진행상황 점검

3 기술 혁신·고도화 (Innovation)

◆ 수출 목적 R&D 지원을 강화하고, 제조 역량 및 제품 품질 고도화

- (R&D) 해외 수요 연계형 R&D 및 실증 지원 강화(농진청 협조)
 - 한국형 낙농기술(동물용의약품, 진단기기 등) 중앙아시아 확산을 위한 'K-카우 와우 프로젝트' 확대(2.7억원→8.1)
 - * 한국형 우량 젖소 축군(Cow)을 조성하고, 놀랄 만한(Wow) 성과를 입증하여 수출 견인
 - 현지 실증단지를 확대* 조성해 낙농기술 패키지(수정란, 사료첨가제, 백신, 호르몬제 등) 실증을 지원하고, 동물용의약품 등록 지원(4건→8, 누계)
 - * ('25) 우즈베키스탄 1개국 → ('26)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탄 등 3개국
 - 중남미 고산지대 맞춤형 농기자재 R&D 신규 추진(볼리비아)
 - * '26년 작물별 작업표준, 수확 품질 등 개선 실증 및 트랙터 부착기(1종) 개발 계획
 - 유럽(고온극북), 아시아(사계절) 등 현지 환경 맞춤형 온실 PO필름 (폴리올레핀) 신규 개발, 스마트팜 수출국 확대 뒷받침
 - * PO필름은 PE필름(폴리에틸렌)보다 투광·보온이 잘되고, 유적성이 높아 장기 사용 가능
- (시설 자동화) 농산업 분야 공장 자동화 등을 위한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(중기부 협조, 기업당 최대 2억)
 - 농산업 기업 수출시설 개·보수 등 현대화 지원(2개소, 총 50억원, 융자)
- (동물용의약품 고도화) 선진국 수준의 GMP(제조·품질관리기준) 지정을 희망하는 수출기업 대상 GMP 컨설팅 지원(5개사, 총 1억원)
 - * 컨설팅 항목: 공정·시설 진단, 기록 체계 정비, 품질관리, 모의실사 등
- 중점기술(진단키트, 백신 등) 기반 동물용의약품 수출전략품목 육성을 위한 임상시험, 제품등록 등 지원(10개社, 총 5.6억원)
- 신약 개발을 위한 위한 시제품 생산시설('26년 준공) 및 임상시험 지원센터('26년 기본·실시설계, '29년 준공 계획) 신규 구축(전북 익산)
 - * 익산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: (1단계) 효능·안전성 평가센터(비임상 및 임상 1·2상 지원, 운영 중) → (2단계) 시제품 생산시설(시제품 생산 및 상업화 지원, '26년 준공) → (3단계) 임상시험 지원센터(임상 3상 지원 및 난치성 질병 연구·개발, '29년 준공)

4 시장 개척 지원 (Market & Move)

◆ 기업 수출부담 경감 및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

- (수출 단계별 비용 지원) '준비(인·허가 등) → 실행(물류비 등) → 홍보'까지 수출 쏙주기 지원 사업 항목 및 한도 확대(19.3억원→26.2)
 - * ('25) 14개 항목, 87개사, 최대 5천만원 → ('26) 20개 항목, 110개사, 최대 7천만원
- 중장기(3~5년) 계획 수립 시 연차별 우선 지원으로 수출전략품목 육성, 기업·품목 간 컨소시엄* 단위 지원 우대로 패키지 수출 유도
 - * (예 : 미주지역 정원관리형) 대기업 트랙터 + 중소기업 부속 작업기 + 가든용 비료·농약
- (스마트팜 수주 지원) 패키지(기자재·솔루션·재배기술 등) 수주를 위한 컨소시엄 지원*(6개) 및 기술력 입증에 위한 현지 실증** 지원(6개)
 - * (지원 내용) 전담직원 매칭, 현지 인프라 구축, 인·허가 지원, 발주처 국내 초청 등
 - ** 통상 현지 재배가능성 증명을 위한 실증 요구, 중소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수주 중단 사례 다
- (마케팅 지원) 민·관 합동 시장개척단* 파견, 해외 박람회 한국관** 운영, 스마트팜·농기계 로드쇼 및 수출상담회 개최 등 지원
 - * ('25년 실적) 중남미(칠레, 멕시코), 동남아(태국), 중동(UAE) 시장개척단 파견 ('26년 계획) 동남아(인니·말련), 중남미(브라질), 일본 시장개척단 파견 예정
 - ** ('25년 실적) 태국, 베트남, UAE 등 11개 박람회 참가 ('26년 계획) 일본, 중국, 사우디, 독일 등 14개 박람회 참가 예정
- (운영자금 지원)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자재 구입자금 융자 지원(농기계 3천억원, 비료 2천억원, 농약 150억원, 동물용의약품 38억원)
- (수출바우처) 농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선발, 부처협업형(중기부) 수출바우처 지속 지원
 - * 기업 수요조사 및 중기부 협의를 통해 지원 업체 및 금액 확정('26.上)
 - * ('24) 78개社 21억원, ('25) 86개社, 23억원 지원

5 대외 협력체계 강화 (External Governance)

◆ 정부 간 협의채널 구축 및 해외 프로젝트 관계자 초청 설명회·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지원

- (스마트팜 정부 간 협력) 스마트팜 성장 잠재력이 큰 중동 지역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간 협의채널 확대
 - (UAE) 정상외교(‘25.11월) 계기, 스마트팜 협력체계 신규 구축 추진
 - 한-UAE 농업협력(스마트팜 협력 포함) 업무협약(MOU)을 체결하고 실무 공동위원회를 운영, 협력 프로젝트 발굴·이행
 - * UAE 내 K-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수출 연계 프로젝트 제안·협의를
 - (카타르) ‘24년부터 연 1회 정례적으로 운영 중인 스마트팜협력위원회*를 통해 현지 실증 추진 및 수출 제안·협의
 - * 한-카타르 스마트팜 협력 MOU(‘23.10월) 이행을 위한 국장급 실무위원회
 - 농업용 필름 실증 결과(온도 경감 및 수분 보존 능력 확인)를 중동 지역 바이어 대상 기능 입증 자료로 활용, 일부 보완사항 개선
 - K-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다양한 수출모델*을 제안·협의하는 한편, 대규모 스마트팜 프로젝트 추진 시 우리 기업 참여 협의
 - * K-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, 거점별 저온저장 시스템 구축 등
- (초청설명회) 정부기관·국제기구·투자기관 등을 국내로 초청, 해외 프로젝트 공유 및 네트워킹을 통해 수출 기회 발굴(신설, 3회)
 - FAO·IFAD 등 UN 조달시장 관계자를 초청하여 기업 설명회 및 정부-기관 협의회 개최
 - * 기업 설명회 이후에도 농진청과 협업하여 조달 발주 동향 정보제공, 실증 및 데이터 수집·제공 등 조달시장 참여 지속 지원
 -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해외 정부·투자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기업 설명회 개최하고, 국내 우수제품 소개 및 우리 기업 참여 협의

V. 품목별 마케팅 전략

◆ 품목별로 중점·유망시장을 구분, 전략적 마케팅 추진

* [중점시장]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시장, [유망시장]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

- (스마트팜) ^{중점시장} 동남아·중동은 베트남 및 사우디 시범온실을 거점으로 스마트팜 로드쇼, 수출상담회 등 마케팅 행사 집중 지원
 - 시장 규모가 큰 ^{유망시장} 북미·유럽은 중점무역관을 신규 지정(캐나다, 루마니아)해 바이어 발굴 지원하고, 캐나다 시범온실 추가 조성(‘26~’27)
- (농기계) ^{중점시장} 미국은 결합판매 및 제품 다각화, 규제 대응으로 관세부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국 내 점유율 유지·확대

- ▶ (결합판매) 중소형 트랙터(주력제품)와 탈부착이 가능한 작업기(제초기·제설기 등) 결합 패키지를 주력 모델로 가든 및 생활관리(제초·제설 등) 수요 집중 공략
 - ▶ (제품 다각화) 중소형 → 대형 트랙터로 제품을 다양화하고, 경쟁사(日 구보 등) 대비 마력대별 세분화하여 소비자 선택지 확대
 - ▶ (규제 대응) EPA(美 환경청) 배출가스 규제(Tier4 최고단계 기준 적용) 적합한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활용하여 규제적합·친환경 제품에 대한 차별화 마케팅 추진

 - ^{유망시장} 유럽은 중소형 트랙터*(60~110 마력), 중남미는 커피·열대 과수용 트랙터 등 지역 특화 제품 확대 및 집중 홍보
 - * 200마력 이상 대형 트랙터는 존디어 등 글로벌 기업이 유럽 시장 선점 중
- (비료·농약) 물류비 이점*이 큰 ^{중점시장} 동남아 점유율 확대를 위해 시장개척단 파견(인니, 말린) 및 현지화를 위한 실증지원(베트남, 인니)
 - * 고중량·저단가 품목으로 물류비 비중이 높아 거리에 따라 가격경쟁력 격차 발생
 - ^{유망시장} 중남미·북미·호주는 고부가가치·친환경(바이오 농약 등) 제품 중심의 프리미엄 전략으로 물류비 부담 상쇄
 - ^{유망시장} 일본·인도는 수요 확대 국면을 활용, ‘프리미엄(기능성·친환경) + 규격화*’ 투트랙 전략으로 대형 유통채널 진출 확대
 - * 대형 유통채널은 성분(N-P-K 함량 조합) 및 포장(25kg) 등 규격화 제품 선호
- (동물용의약품) ^{중점시장} 유럽은 기존 주력제품인 라이신(동물용영양제) 이외 반려동물 증가세에 맞춰 의료기기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
 - ^{유망시장} 중남미(부스틴 : 산유축진제), 중동·동남아(백신), 북미(의료기기) 등 수요 맞춤형 마케팅 강화

VI. 추진 일정

추진과제	일 정	소 관
1. 국내외 수출 거점·기반 조성 (Platform Set-up)		
○ 해외 시범온실 조성·운영	(사우디) '26.上 준공 (캐나다) '26.下 착공~'27.준공	농식품부
○ 국내 수출 지원센터 조성	(수출지원센터) '26~'28 (AX 비즈니스센터) '26~'28	농식품부
○ 농기계 수출 거점 구축	(필리핀) '26~'34 (세네갈) '24~'27	농식품부
2. 규제 대응 및 무역 장벽 해소 (Readiness & Rules)		
○ 인·허가 통합 지원단 운영	반기 1회	농식품부·농진청
○ 통상 대응 민·관 협의체 구축	반기 1회	농식품부·KOTRA
○ 농산업 비관세장벽(NTE) 애로 해소	(이슈리포트) 주 1회 (HSK 개정) '26~'28 (단기수출보험) 계속 (중점무역관) 계속	농식품부·재경부· 관세청
3. 기술혁신 · 고도화 (Innovation)		
○ 수출 지원 연구개발(R&D) 강화	계속	농식품부·농진청
○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조성	계속	농식품부·중기부
○ 동물용의약품 고도화	(GMP 컨설팅, 수출전략품목) 계속 (시제품 생산시설) '26. 준공 (임상시험 지원센터) '26 ~ '29	농식품부
4. 시장 개척 지원 (Market & Move)		
○ 수출 전주기 지원	계속	농식품부
○ 스마트팜 컨소시엄 및 실증 지원	계속	농식품부
○ 마케팅·운영자금·수출바우처 지원	계속	농식품부
5. 대외 협력체계 강화 (External Governance)		
○ 정부 간 협력(G2G) 강화	계속	농식품부
○ 정부기관·투자기관 초청설명회	'26.上 1회, '26.下 2회	농식품부